

- 주요 뉴스: 미국 8월 구인건수, '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증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
 -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은행은 경기둔화를 고려한 충당금 확충이 필요
 - G7,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3단계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3.1%], 달러화 약세[-1.4%],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매수 및 주요 국채금리 하락 지속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3.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6%,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8월 구인건수 결과 등이 반영
 독일은 ECB가 금리인상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전망 등으로 5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415.7원, -10.8원) 0.7% 하락, 한국 CDS 하락

		10/4일	10/3일	전일대비			10/4일	10/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90.9	3,678.4	3.06%	국채 금리 10y	미국	3.63%	3.64%	-1bp
	유럽	403.03	390.83	3.12%		독일	1.87%	1.92%	-5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3.88%	3.96%	-9bp
	일본	26,992	26,216	2.96%	CDS 5y	한국	53bp	57bp	-4bp
	한국	2,209.4	휴장	2.50%		중국	95bp	106bp	-11bp
환율	달러지수	110.18	111.75	-1.40%	위험 지표	EMBI+	-	469	-
	유로화	0.9986	0.9826	1.63%		VIX	29.07	30.10	-3.42%
	엔화	144.13	144.55	0.29%		WTI유	86.52	83.63	3.46%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349.0	341.0	2.35%
	원화	1,426.5	휴장	0.26%		금	1,726.1	1,699.9	1.5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구인건수, '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증가

- 8월 구인건수는 1005만건으로 전월(1117만건) 대비 감소하며 '21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 기록. 감소폭은 '20년 4월 이후 최대. 부문별로 보건, 소매, 서비스, 금융 부문 등에서 구인건수 감소폭이 큰 편
- 이번 발표 이후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급부족 여건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증대. 노동시장이 냉각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호황기가 끝나가는 초기 단계(Amherst Pierpont)
- 노동력 부족 상황이 개선될수록 임금상승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연준이 이를 반영하여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
-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해고가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이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급이 팽팽한(tight) 상태라고 지적. 또한 노동시장 수급에 점진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이 통화긴축을 멈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Moody's Analytics의 Sophia Koropecjy)
- 한편 이날 호주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0.50%p)보다 낮은 0.25%p 금리인상을 단행. 그 동안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높였기에 속도를 조금 늦추었다고 부연. 호주 중앙은행의 이러한 결정 역시 연준이 통화긴축 속도를 이전보다 늦출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

- 물가상승률을 완전히 낮출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여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연준은 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을 먼저 고려한다고 첨언
- 연준의 제퍼슨 신임 이사는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며, 그 동안 성장률은 장기 평균을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근원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인상 추진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역내 연간 근원 인플레이션 수준이 4.8%에 이르러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 근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역내 성장둔화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 ECB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

■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높은 수준. 에너지 제외 시 상승세 둔화

- 8월 생산자물가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43.3%, 5.0%로 전월(38.0%, 4.0%) 대비 오른 것으로 확인. 에너지 가격이 이번 상승을 주도. 에너지 제외 시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14.5%, 0.3%에 그쳐 전월(15.1%, 0.6%) 대비 낮은 수준

■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은행들은 경기둔화 고려한 충당금 확충이 필요

- 데코스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가계와 기업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은행들은 이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 다만 현 상황에서 은행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첨언

■ G7,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3단계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 미국 재무부의 해리스 차관보는 G7이 러시아산 원유(1단계), 디젤(2단계), 나프타 등의 저부가가치 제품(3단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격상한제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부연

■ OPEC+, 일일 최대 200만배럴 생산 감축을 논의할 가능성

- 소식통에 따르면, 10/5(수) 회의에서 일일 최대 200만배럴 감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는 일일 100만~150만배럴 감산 논의를 전망. 다만 이미 다수 회원국의 실제 생산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이 기존 원유시장 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공장수주(전월비): 0.0%, 7월(-1.0%), 예상치(0.3%)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현실화 가능성에 주목 - The New York Times

(The All Too Real Risk of a Global Recession)

- 금리인상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축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 진입 우려가 대두. 이에 더해 미국은 달러화 강세 덕분에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
- 현재 각국의 금리인상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부채문제가 부각될 우려. 이러한 부정적 파급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 그렇지 않다면, 전세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위험이 상당

■ 크레딧스위스 사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고리를 드러낼 소지 - Economist

(The hunt for the weakest link in global finance)

- 금리가 오르고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고리를 탐색. 최근 '영국'과 '크레딧스위스'가 유사한 뇌관으로 조명 받고 있으며, 동 은행 주가는 금년에만 55% 하락했고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도 급등
- 크레딧스위스는 아케고스와 그린실* 사태로 인한 손실 및 IB 부문의 축소 등 민감한 사안을 떠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위기를 촉발할 확률은 낮아 보이는 경영상의 문제로 평가

* 작년 3월 파산한 핀테크기업으로 크레딧스위스는 관련하여 1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청산

- 동 사태는 긴축적 금융여건과 경기 침체 우려 가운데 취약한 기업이 압박을 받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은 다음 타자가 될 '취약 고리'를 계속 탐색해나갈 전망

■ 영국 파운드화, 정책 유턴에도 약세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 - Capital Economics

(Policy U-turns unlikely to take the pressure off the pound)

- 최근 파운드화의 반등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압력의 약화와 함께 영란은행의 긴급 대응 및 감세안 일부 철회 소식 등에 의한 것이지만,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영국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역사적으로 달러화는 글로벌 경제전망이 악화될 때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PMI는 선진국들의 통화긴축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파운드화에 부담

■ **달러화 악순환(dollar doom loop)*, 비통상적 여건으로 해결에 어려움 가중 - 블룸버그**
(One More Reason the Dollar Doom Loop Is So Hard to Break)

- 역사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여타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유발하며 달러화 약세를 초래. 하지만 Standard Chartered는 최근 경제 여건의 특수성으로 달러화 악순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 달러화 강세로 제조업 업황이 둔화되고 이에 글로벌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 특히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봉쇄 여파가 존재. 이는 당분간 유로화 및 위안화의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
- 한편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촉발시켰으나, 연준이 달러화 강세를 무조건 선호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강화는 연준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 **중국의 부동산 위기, 속도는 느리지만 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 - Financial Times**
(China's property crash: 'a slow-motion financial crisis')

- 아파트 분양 부진과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에서 시작한 부동산 위기는 지방 정부 차원의 위기로 변모할 가능성. 중국은 인프라 및 주택건설을 통한 경제성장에 의존했던 과거로부터 탈피하는 변곡점에 위치(Hang Seng Bank의 Dan Wang)
-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자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LGFV(Local Gov'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가 조달이 어려운 상태이며, LGFV 채권의 대량부도 발생 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

■ **미국 노동시장, 보기만큼 공급부족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블룸버그**
(The US Labor Market Is Looser Than It Appears)

■ **미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 가격 인상 유인 축소로 이어질 소지 - 블룸버그**
(We Should All Cheer the Return of Company Profits)

■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중국 및 세계 정치경제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Xi Jinping's third term is a tragic erro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